

더위야,
물러서거라~

- 02 시정포커스 _ 성남시, 고유가 대응에 적극 나서
- 03 미래형첨단도시 e푸른성남 _ 제13회 여성주간 행사
- 08-09 기획특집 _ 고유가 시대 극복법, 자전거
- 12 신지식라이프 _ 기획연재 공공디자인(6) 색채계획
- 16 문화공감 _ '2008 남한산성 단오제' 열려



성남시 물놀이장 20개소 개장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로 지난해보다 앞당겨 6월 20일 탄천 물놀이장 등 13곳이 일제히 문을 연 데 이어 7월 초순 단대공원 물놀이장 등 7곳도 새로 개장.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시민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여름철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중원구 금광2동 자혜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개구쟁이들.

공원과 공원운영팀 729-4274
사진 _ 공보담당관실 <관련 기사 13면>

성남시, 고유가 대응에 적극 나서

서민생계 안정대책 추진 · 에너지절약 운동 전개 승용차 2부제 실시, 매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에너지절약 3·3·3 따라잡기
모두가 함께하는 에너지 아껴쓰기 캠페인

사무실에서 3

- ▶ 점심시간 조명등 끄기
- ▶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끄기
- ▶ 엘리베이터 운행 줄이기

가정에서 3

- ▶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 ▶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
- ▶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여름 26~28도, 겨울 18~20도)

자동차에서 3

- ▶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기
- ▶ 대중교통 이용하기
- ▶ 경제속도·경제운전 실천하기 (60~80 km/h)

www.kemco.or.kr

한 사업 중 서민생계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37개 사업을 선정, 운영할 방침이다.

저소득 소외계층 및 홀몸노인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 등 28개 예산사업은 조기 집행하고 범시민에너지 절약운동 전개, 성남사랑 상품권 이용,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방지신고센터 운영 등 9개 비예산사업은 현안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침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민생계 안정과 연계되는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지침 변경 등 제도를 개선,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승용차 2부제를 정착시킨 성남시는 고유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시민에너지절약 추진대책을 수립, 실천에 나섰다.

6월부터 청사 내 34개 사무실별 에너지지킴이를 지정, 적정 실내온도 준수, 시청사 점심시간 소등하기, 개별 전열기기 사용 자제, 불필요한 사무용기기 전원차단, 창측 조명 끄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6월 18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에너지 나눔의 날'로 지정,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후 6시 20분에 시청·구청·동주민센터를 일제 소등한 후 일찍 귀가해 가족과 함께하는 등을 실천수행하는 한편 범시민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고유가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경제과 지역경제팀 729-2574/ 에너지관리팀 729-2663

성남시는 고유가·고물가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영세서민의 생활경제에 대한 시 차원의 '서민생계 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시는 예산 10% 절감과 병행해 각 부서에서 추진 및 계획



『안심도시 U-City 성남』 만들기 방법 CCTV 시 전역 설치

성남시가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시 전역에 폐쇄회로TV(CCTV) 감시망을 구축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6월 말까지 3개 구 4개 동에 22대의 방법 CCTV를 시범설치하고, 올 하반기까지 시내 주요 지역에 100여 대를 설치

하는 등 2009년까지 시 전역에 300여 대의 방법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방법 CCTV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인터폰과 스피커를 통해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 처리하는 최첨단 고성능 시스템으로 주로 주택밀집 지역의 우범지대,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공원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다.

본 사업은 『U-City 성남 프로젝트』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U-City 계획과 연계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와 시설물감시, 불법주정차, 재난상황에도 활용한다.

2010년 여수동 시청사 내 도시통합정보센터(가칭) 방법상황실에서 시 전역을 관제(管制)하는 등 '안심도시 U-City 성남'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과 U-City추진팀 729-2453

7월 3일 탄천변 도로 2·3단계 개통식



관교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해온 탄천변 도로 2, 3단계가 개통돼 오는 7월 3일 개통식을 갖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수정구 수진동(중앙로)~북정동(성남대로)간 3.7km(2단계 1.1km, 3단계 2.6km) 구간으로 2003년 2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됐다.

7월 3일 오후 4시, 태평동-북정동간 도로 시점부(탄천

물놀이장 입구)에서 내외빈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그동안 갈등을 겪어온 민·관·군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탄천변 도로 개통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전행사로 남궁옥분과 양하영의 공연에 이어 개통행사, 개통도로주행이 있을 예정이다.

도로과 도로시설팀 729-3603

시/정/뉴/스

제53회 현충일 추념 청소년 주먹밥 먹기 체험행사



성남시는 6월 9~12일 태평4동 현충탑에서 제53회 현충일 추념 청소년 주먹밥 먹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새마을부녀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대학생 등 4천여 명이 참여해 참배 후 주먹밥을 먹으며 조상들의 애국충정을 상기해보고 6.25전쟁 사진전도 관람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사이버 헌화대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운영하고 있다. 헌화는 시·구·동 홈페이지에 접속해 배너 및 팝업창을 클릭, 참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729-2862

2008 성남 메디·바이오플라자 성료



지난 6월 18~20일 정자동 킨스타워에서 성남시 소재 45개의 우수 의료·바이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향연의 장 '성남메디·바이오플라자'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성남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이 기간 해외시장진출 설명회, 벤처기업 투자상담회 등이 열려 비즈니스 활동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등 성남시가 첨단 의료기기 및 바이오 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또한 21세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인 모바일 산업 관련 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바일기업 CEO 포럼을 지난 6월 24일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개최, 참여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9월엔 메디·바이오 포럼을, 11월엔 디지털콘텐츠 포럼도 열 계획이다.

성남산업진흥재단 782-3022

성남문화원 개원 30주년 행사



1978년 7월 5일 개원, 성남지역 향토문화 창달과 계승발전에 힘써온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7월 4일 오후 3시 정자동 킨스타워 강당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200여 명의 성남문화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문화비전 선언 낭독'을 비롯해 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에 이어 축하연이 마련된다.

문화원은 성남문화에 대한 생생한 역사기록과 자료보존을 위해 <성남문화원 30년사>를 최근 발간했다. 창립 때부터 200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록물로 '돌아보는 30년' 앞서 가는 주요 사업 '내 고장 성남' 등으로 집필됐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문화원 3층 전시실에서는 '성남문화가족 소장전'도 열린다.

성남문화원 756-1082

제13회 여성주간 맞아 양성평등 행사 풍성

<7월 1~7일>

성남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비롯해 여성지도자 양성 등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단체 활성화는 물론 건강한 아동 육성 등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국제제결혼 가정을 위한 'I Love Seongnam' 프로그램, 행복한 건강가정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여성권의 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7월 1~7일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는 여성주간(7.1~7)을 맞아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제13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남 여성의 단합을 다지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성남시립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에 이어 성남시 여성상 수상자와 성남여성 기예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 및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식후 축하 공연으로는 가수 박강성, 해바라기, 김세환과 함께하는 미니 콘서트가 펼쳐진다.

제21회 성남시 여성상 수상자는 강태화(홍릉한어머니부부·분당구 야탑2동), 전경모(봉사부문·수정구 수진2동), 김선임(예능부문·수정구 태평1동) 씨 등 3개 부문 각 1명이다. 공연장 야외에서는 제21회 성남여성 기예경진대회 수상작품인 서예, 회화, 문인화, 사진 등 4개 부문의 작품이 전시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여성주간』은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우리 사회 여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해마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정해 여성의 발전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다.

◆ 7월 3일 음악극 '아줌마닷컴' 공연

성남시와 여성단체협의회는 제13회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로 7월 3일(목) 저녁 8시 성남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음악극 '아줌마닷컴' 공연을 마련한다.

아줌마의, 아줌마에 의한, 아줌마를 위한 연극으로 이 시대가 바로 설 수 있는 중심에서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아줌마라고 불리는 그녀들의 일상을 진솔하고 리얼하게 또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30~50대 여성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 여성의 삶을 재조명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①)

◆ 7월 29~31일 청소년 성교육 캠프 운영

성남시와 (사)경원사회복지회는 2008 청소년 성교육 캠프 '성을 찾아 고고씽!'을 실시한다.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 및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이번 캠프는 오는 7월 29~31일 2박3일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안을 비롯해 올바른 이성교제, 성매매 예방교육, 게임을 통한 성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래프팅 체험, 캠프아이 등 다양하게 꾸며진다. 시 거주 중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6월 25일부터 가족여성과로 선착순 전화하면 된다. (사진 ②)

가족여성과 여성생활팀 729-2922

인터뷰 | 2008 성남시 여성상 봉사부문 수상자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 만들어가는 해피데이 전경모 회장

성남에 터를 잡고 몸으로 뛰어난 25년! 올해 성남시 여성상 수상자(봉사부문)인 '해피데이(Happy Day)'의 전경모(56·수정구 수진2동) 회장을 만났다.

지난 80년 두 딸을 데리고 성남으로 이사 와서 셋째 딸을 출산한 후, 83년부터 헌옷을 모아 세탁하고 꿰매고 다림질해 장애인 시설에 전달하고, 튀김집에서 기름을 얻어다가 비누를 만들어 팔아 식료품을 사서 전달하면서 작지만 특별한 봉사를 시작했다.

참으로 막막하기만 했던 시절이었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모란시장에서 장사를 했고, 때로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체에 봉사를 한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장애인들과 맺은 인연을 끊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96년 수진2동에 비영리단체인 사회복지후원회를 인가받아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야쿠르트를 전해주는 아줌마님들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황을 살피는 연락체계도 갖추었다. 98년에는 해피데이를 탄생시켜 현재 25명의 회원이 매주 토요일이면 북옥과이·미용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이주여성 친정어머니 되어



주기'에도 참여해 베트남 딸을 두었고, 새터민도 보살피면서 대한적십자사 수정봉사회에서 11년, 성남동 작은사랑의집 등에 또 다른 인연을 맺은 이들을 만나러 20년째 찾아간다.

그러나 이제는 봉사하는 데 힘이 덜 든다고 한다. 98년 수진동 골목에 작은 음식점을 열어 1년에 두 번씩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을 했는데, 올해는 혜성토탈리클럽 후원의

로 제일경로당에서 200명이 넘는 어르신을 모시고 성대하게 경로잔치(6월 4일)를 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홀로지내다 돌아가신 분들이 뒤늦게 발견되어 장례를 치르는 일이다. 지난 3월에도 어르신 한 분의 장례를 치렀는데 다른 행정절차와 관련 기관에서 하지만 경위조사는 그동안 돌봐온 전경모 회장의 몫이었다.

돌아오는 길이면 수없이 생각하고 다짐도 한다. 성남에 살기를 참 잘했다. 후회는 없다. 어려움 속에서도 잘 키운 아이들이 고마워서 눈물이 흐를 때가 많았다고 한다. 앞가림도 못하던 시절, 그래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봉사가 어려움을 이기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늘도 어르신네가 부탁한 서류 심부름을 하러 동주민센터 직원 퇴근 전에 가야 한다고 총총히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봉사가 생활 자체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막내딸만 시집보내면 집을 마련해 홀몸 어르신을 모시고 보살피면서 사는 것이 꿈이라는 전경모 회장. 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등불 같은 여성이 아닐는지.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강정일당상 후보자 추천받아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1986년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된 후 2005년 문화관광부 7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돼 추앙받고 있는, 조선 후기 여류문사 강정일당(1772~1832)의 업적을 기리는 '제11회 강정일당상' 수상 후보자를 7월 31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성남시 거주 또는 활동한 50세 이상 여성으로 여진 인품과 부덕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해,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된 분이며, 구청장·동장·기관·사회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수상자는 8월 중 선정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강정일당의 업적을 기리는 제17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도 7월 19일 오전 11시부터 남한산성유원지 놀이마당에서 개최한다.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청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백일장은 학생부, 일반부(산문·운문)로 나뉘어 진행되며, 우수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백일장 제목은 대회당일 발표하며, 참가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성남문화원 사무국 756-1082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1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대학 개설·운영

성남중앙시장이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의 국비 지원 상인대학으로 선정된 가운데 6월 16일 오후 을지대학교에서 '중앙시장 상인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입학식을 치른 중앙시장 상인 59명은 국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8월 13일까지 9주 과정으로 상인 의식혁신, 고객만족 점포경영, 불만고객 응대, 포장 기법, 상품진열 등의 내용을 교육받게 된다. 중앙시장 상인대학 운영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전국 유통경영 전문 교수들을 초빙 강의하는 방식으로 주 2회 태평3동 새마을금고에서 운영되며 상인대학 명예학장으로 이대엽 성남시장이 위촉됐다.

시청 생활경제과 유통팀 729-2592



3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 북경대에서 연주 가져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가 지난 6월 13~14일 북경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만돌린 협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왔다.

2천여 명의 관객이 모인 이날 공연에서 "아리랑"을 연주할 때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는 성남지역의 민간 음악단체로 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7월 2일(12:00~13:00)에는 분당제생병원에서 환자 위문 공연을 갖는 등 성남에서도 매년 20여 회의 크고 작은 연주회를 펼치고 있다.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 010-4933-7758
www.bundangmandolin.com



5 행복한 입양가족 한우리 축제 열려

국내입양 전문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성남아동상담소는 2008년도 성남시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6월 19일 국내입양 활성화 프로그램 '행복한 입양가족 한우리 축제'를 개최했다.

국내입양가정과 해외입양가정 23가정이 모여 한국민속촌을 둘러보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함께 느껴보고 가족화합 놀이마당을 통해 입양가족으로서의 공감대를 나누었다.

이날 만남의 자리는 국내입양 가정들에게 입양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들 가정이 건강하게 육성하도록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동방사회복지회 성남아동상담소 747-5036
www.adoptlove.or.kr

2 혼인 및 출생 신고 하면 태극기 제공

수정구는 6월부터 혼인신고뿐 아니라 출생신고 시에도 태극기를 지급한다.

이는 시민들의 결혼 및 출생을 축하하고 태극기에 대한 애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정구에 내방하여 혼인 또는 출생 신고하는 시민에게 5천 원 상당의 가정용 태극기(60×90cm) 1세트를 제공한다.

수정구 시민과 가족관계등록팀 729-5091

4 제1회 새터민 한민족 노래자랑대회 개최

지난 6월 14일 오후 1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체육관에서 제1회 새터민 한민족 노래자랑대회가 개최됐다.

성남시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주최하고 청솔·청솔·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내 한민족의 열을 되새겨보는 자리였다. 새터민 참가자 10팀과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대상은 '우지마라'를 부른 청솔마을 이모 씨가 차지했다.

청솔종합사회복지관 714-6333

6 어린이 영농투어 실시

분당구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농사체험을 실시, 생명산업의 뿌리인 농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영농투어를 실시한다.

지난 5월 다육선인장 분갈이체험, 6월 토마토관찰 수확체험에 이어 오는 9월엔 고구마(대장동), 10월엔 개발선인장(백현동) 체험이 진행된다.

경제교통과 산업경제팀 729-7262



성남시 홍보 브로슈어 '2008 우수디자인'에 선정



성남시 홍보 브로슈어가 '2008 우수디자인(GD)'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 5월 28일 선정됐다.

'사람이 기회인 도시'를 주제로 한 성남시 홍보 브로슈어는 지난 1월 발간돼 자매결연도시 등 대내외 성남시 홍보에 사용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 선정 제도는 우수한 디자인상품을 선정, 장려함으로써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제품, 포장, 환경, 커뮤니케이션, 건축 디자인 등 총 7개 부문에서 독창성, 인터랙션, 통합디자인 등을 심사해 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팀 729-2075~6

시정알림

등초본·인감 등 제증명 매일 24시까지 발급

성남시가 야간 및 공휴일 구분 없이 365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를 각 구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처리대상민원은 지방세 납세증명, 공시지가확인원, 출생·사망신고, 전입신고, 팩스민원 등이다.

여권민원실(탄천종합운동장 내)은 여권접수 및 교부를 평일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여권민원실 729-2407
구청 민원실 | 수정구 729-5509 중원구 729-6502 분당구 729-7508

성남시 전자도서관 이용 안내

성남시전자도서관은 도서관별 디지털자료에 대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정보 자료 총 69만여 건 △멀티미디어 자료 총 9만3천 건 △사전류 총 20여 종 △어린이 영어동화 2,800여 종 △온라인강좌 400여 종 △오디오북 100여 종 △학술간행물DB 1,118종, 86만 개 논문을 집에서 무료로 검색, 저장, 출력 가능하다. 중앙도서관 수서정리팀 729-4622

성남시 수돗물 믿고 안심하고 드세요!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수돗물의 생산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2008년 성남시 수돗물품질보고서』(A4 규격 8면)가 최근 발간됐다. 수돗물에 대한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미생물과 유해물질 등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55개)에 대한 검사결과와 종합적인 정보가 실려 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과 729-4142 (<http://water.cans21.net>)

도서관을 통한 '하나 되는 다문화 교육'

중원도서관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의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능력 향상 및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6월 3일(화)부터 11월 18일(화)까지 그림책을 통한 한국 및 세계문화 이해를 중점으로 이뤄진다.

아이가 없는 결혼이주여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운영기간 내 계속 접수한다.

중원도서관 정보봉사팀 752-3916



만나보았습니다 | 7월 개관하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박수열 센터장

전국 최초 보건·의료·복지 통합 모델 노인병 전문서비스 제공

7월 1일 개관을 앞두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가 6월 16일 임시운동을 시작했다. 성남시가 건립, 전문병원 늘푸른 의료재단 보바스기념병원이 위탁 경영하는 전국 최초의 노인전문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관심이 대단하다. 박수열 센터장을 만나 센터의 일과 궁금한 점을 알아보았다.

Q 노인보건센터는 어떤 곳이며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A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의료·복지가 통합된 신개념 모델로 크게 △노인병 외래진료(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재가복지(단기보호, 주·야간 보호) △노인병 관리·교육·연구조사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의원, 요양원, 복지관의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종합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재가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차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질병치료와 재활, 일상생활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A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주민등록상)로 외래진료는 60세 이상의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재가복지시설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이면 이용할 수 있다.

Q 센터에 입소해 단기 보호 등을 받으려면 절차는.

A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단기보호의 경우는 내원해서 상담을 통해 입소자를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자만 입소 가능하며, 주야간보호 또한 상담을 통해 적응관찰기관을 두고 입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Q 센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A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각종 진료실과 치료실, 102개 병상과 전문의료진, 보호요양사, 물리치료사 등 70여 명의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보바스기념병원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재원들을 선정, 배치함으로써 남다른 능력과 봉사심을 가진 전문의료진의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Q 전국 최초 노인전문의료기관으로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A 처음 시행하는 일이니만큼 책임감이 크지만, 우선 모든 업무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문적 의료서비스 외에도 책자발간, 무료 강좌 등 시민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명실상부한 노인보건센터로 나아갈 계획이다.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성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이 늘고 있다. 질병에 걸리고 나면, 그 병을 치료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비, 고통이 따르게 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평소 자신의 건강 체크리스트도 작성해보고 건강상식도 접해보고, 자가진단도 하면서 꾸준히 예방한다면 누구나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739-3000(7.1부터 개통) 739-3012~3(6.30까지)
박혜정 기자 misop215@naver.com



박수열 (38·사진 왼쪽) 센터장 약력
-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재활의학과 전문의
- 보바스기념병원 재활센터장 역임
- 현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총괄 운영 및 진료 담당

복지정책 ABC ④

6월부터 달라지는 생활법률

이달 중순부터 불법주·정차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엄벌조치, 자녀 출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등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처리된 다양한 생활법률이 발효된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6월 22일 시행)** = 불법주·정차 등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자진납부하면 20% 이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납부기간 경과시 최저 5%에서 최고 77%(5년간 매월 1.2%씩 가산)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체납 각 1년 경과, 3회 이상 체납, 합계 500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법원 감치(3회 이상 체납·체납 각 1년 경과·합계 1천만원 이상)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

◆ **여권 대리신청제도 폐지(6월 29일 시행)** = 전자여권 도입 및 차명여권 방지를 위해 여권발급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본인이 직접방문 신청해야 한다. 단,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증빙자료 필요) △만12세 미만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대리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이 될 수 있다. 민원여권과 여권팀 729-2382

◆ **기타** = △3일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신 1년 내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등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협의이혼할 수 있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된 『민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또 구가 설치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 6월 29일 시행된다.

※ 과태료별 문의

-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정/중원/분당구청 경제교통과 729-5440~4/ 6440~4/ 7440~4)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 729-3771~7)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 729-3761~6)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환경관리과 729-3161~5)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729-5320~4/ 6320~4/ 7320~4)
-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연 과태료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729-5290~4/ 6290~3/ 7290~3)

복/지/알/리/미

인터넷 'OK주민서비스' (www.oklife.go.kr) 운영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8대 분야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생활체육, 문화, 관광, 평생교육'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OK주민서비스' 포털 시스템이 현재 운영 중이다.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이를 접수해 안내와 함께 처리하고 그 결과도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다.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29-2824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수정구 729-5212 중원구 729-6212 분당구 729-7214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성남시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제조업 및 기타 사업장 근로자로서 월 보수 17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여성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732-7555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개설

지역의 중소기업 및 재직근로자를 지원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지사장 이윤규)가 개설됐다.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주요 사업은 △국가기술자격 시험·자격취득자 관리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능력개발지원 △기술·기능 장려와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과 구직지원이다. 이번 성남지사의 개설로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자격증 교부 등을 위해 서울이나 수원으로 가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750-6200(태평역 5번 출구 대한도시가스 빌딩 4·5층)

제5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의정방향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 !

2008년도 제153회 임시회 마무리

성남시의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제153회 임시회를 열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총 27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였다.



성남시의회 이수영 의장이 제153회 임시회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제1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
 -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보류
 -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 - 부결
- ◎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
 -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 원안가결
 -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의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보류
 - 4.18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 부결
-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 공원으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 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박유신 등 172명) - 원안채택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
 -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총 : 2조 3,365억 1,103만 1천원
 - 일반회계 : 1조 2,787억 4,827만 1천원
 - 특별회계 : 1조 577억 6,276만원
- ◎ 기타(분회의)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 원안가결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 - 부결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별 현장 답사

-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앞두고 분주한 시간 보내 -



사회복지위원회 - 장금이랜드 조성 사업 현장



자치행정위원회 - 부천시립중앙도서관 방문



도시건설위원회 -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현장



경제환경위원회 - 탄천 웰빙공원 부지 현장

성남시의회(의장 이수영)는 지난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열린 제153회 임시회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작하는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성남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자치행정, 경제환경, 사회복지, 도시건설)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해당 위원회 소관별 사업 현장과 관련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타 기관을 각각 방문,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장 주변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다.

상임위원회가 찾은 현장을 살펴보면, 5월 14일 처음 현장 방문에 나선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위원들은 성남시가 분당구 율동공원 주변에 조성코자 하는 공중생활과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장금이랜드 조성 사업 현장'과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수정구 양지공원 내 부지에 마련코자 하는 '태권 문화마을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나섰다.

이어 5월 15일 오전 9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위원들은 성남시가 2008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인 공립문고(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 계획에 따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작은 도서관을 위해 부천시의 시립중앙도서관 및 도란도란 작은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오전 10시에는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위원들이 주요 정책사업 시행 현장인 경원 진지 진입로 설치공사 현장, 판교지구-탄천로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현장, 도촌지구-공단로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등 4개소를 답사하여 사업 현황을 살피고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후 2시에는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 위원들이 문화공간 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율동공원 및 웰빙공원 부지 등을 답사 주변의 여건 사항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현장 답사에 나선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답사의 주 목적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각 사업 지역의 여건 파악 및 여론 수렴, 사업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 검토하여 추경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고 말한 데 이어 4개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답사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성남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토의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각 소관 사업별로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 삭감 또는 수정 조치하여 눈길을 끌었다.

전국 최초, 최대 규모의 학교 내 영어마을 e푸른성남 영어체험센터 개관



성남시가 28억6천만 원을 경기도 성남교육청에 지원, 설립한 e푸른성남 영어체험센터가 6월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의 목적은 체험 중심의 영어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함은 물론, 양질의 체험형 영어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세 번 놀랄 것 같다. 첫 번째는 영어권의 어느 나라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잘 조성된 이국적인 환경 때문이고, 두 번째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센터가 학생뿐 아니라 성남 시내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학교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분당구의 청솔초등학교와 수정구의 창곡중학교 2곳에 개관했으며 1년에 2회 정도 무료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들은 학교가 희망하는 날을 배정받아 입소할 수 있다.

센터는 청솔초등학교 17개 룸과 창곡중학교 8개 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IT World, Multi-purpose room, Library, Celebration, Art room, Science room 등 실속 있고 짜임새 있는 영어체험학습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각 룸은 현대적인 시설과 최첨단 기자재 활용



재밌고 실질적 체험교육으로 영어 자신감 길러 학생뿐 아닌 지역주민에게도 열려 있어

으로 최대한 체험중심 영어 교육이 이뤄지도록 힘을 썼으며 원어민 강사 12명, 내국인 강사 10명이 학생들을 지도한다.

현재 활용 중인 성남영어마을과 다른 점은 합숙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규 프로그램은 무료라는 것이다. 정규 프로그램(무료) 외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유료 1달 28,000원), 방학 중 학생 영어캠프 운영, 교사 영어연수 과정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학부모 영어교실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느끼지 못하는 실질적인 영어 학습으로 영어의 자신감을 길러주고 특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성남시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영어체험센터를 개관하기까지 불철주야로 힘을 쏟은 성남교육청 객영희 장학사의 말이다.

취재팀이 방문했을 때 청솔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미금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12명씩 팀을 이뤄 각 룸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국계 미국인 선생님과 수업중인 World Travel 룸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위치, 특징 등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매우 재미있고 색다른 느낌이에요.”(정준호·왼쪽 사진 둘째줄 오른쪽 두번째)

“학교 친구들과 같이 오니 더 좋고요.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어요.”(임세리·앞줄 오른쪽 두번째)

둘러선 친구들의 함성이 이어진다. “시설이 너무 좋아요~ 학교 영어수업도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e푸른성남 영어체험센터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다지고 더 나아가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길 소망한다.

e푸른성남 영어체험센터 인터넷 주소는 www.sneec.or.kr이다.

구현주 기자 sunlin-p@hanmail.net

클릭, 청소년 행사

한부모가족 자녀캠프 운영

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 8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4~16일 2박3일간 이대 고사리수련관에서 싱글빙글 행복이 가득한 ‘한부모가족 자녀캠프’를 연다.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건강한 가족생활과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자아성장 캠프로 문경새재 상활놀이, 자아존중감찾기, 게임으로 배우는 경제, 엄마아빠에게 편지쓰기, 장기자랑 및 캠프파이어 등으로 꾸며진다. 참가희망자는 7월 15일까지 각 동주민센터 사회담당에게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 729-2914,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팀 수정구 729-5254, 중원구 729-6252, 분당구 729-7252

청소년 자원봉사 ‘우리 동네 가꾸기’

중·고 청소년들의 환경정화활동과 조별 환경지도 그리기로 꾸며지는 청소년 자원봉사 ‘우리 동네 가꾸기’가 6월 29일 중앙공원에서 진행된다. 수련활동인증제 인증프로그램 제81호로 참가희망자는 6월 14일부터 수련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 자원봉사 정기교육도 6월 28일(토) 오전 10~12시 열린다.

서현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 781-6184

책, 맛있게 먹자 - 도서관 탐험여행



매월 둘째 주 토요일(13:00~15:30)에는 색다르고 재미있는 도서관 탐험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한달에 딱 1권이라도 책을 제대로 읽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여름방학 ‘백제문화탐방’

분당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청소년 성장프로그램 ‘백제문화탐방’을 7월 23~24일 충남 공주에서 갖기로 하고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대상은 분당구 거주 초등학생 4~6학년으로 6월 30일까지 분당구청 총무과 자치지원팀으로 방문, 팩스(729-7521), 이메일(yusung71@cans21.net)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분당구청 총무과 자치지원팀 729-7041

경기도 대표로 지정된 성남시청소년문화존 운영



지난 4월부터 올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면 서현역 문화거리에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창작활동, 공연예술, 과학여행, 진로개발 등의 욕구를 해소하는 체험프로그램 ‘성남시 청소년문화존’이 운영되고 있다. 참가비용은 무료.

경기도 청소년문화존 홈페이지 www.kgzone.or.kr

10대 청소년 문화 경연대회 안내 <http://kgzone.or.kr/gag.htm>

7월 가족이 함께하는 공주기행



분당여성회는 7월 20일(일) 오전 8시 가족이 함께하는 공주기행을 갖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기행코스는 석장리전사관~공산성~무령왕릉~공주박물관으로 참가비는 1인당 3만원(점심식사제공, 차량비, 여행자보험 등)이다.

분당여성회 702-9622

고유가 시대 극복법, 자전거

휘발유 10에 2000원이 넘는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어 고유가 시대를 실감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시책이 이어지고 자전거출근족이 증가하는 등 에너지도 절약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자전거가 고유가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을 위한 기회, 자전거

성남시는 승용차 2부제 실시, 적정 실내온도(여름철 26~28℃) 준수, 카풀제 등에 이어 6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날 등 공직자 '에너지 나눔의 날'로 지정해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을 연계한 생활속 자전거 이용도 권장하고 있다.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건강에는 오히려 좋다. 의학전문 칼럼니스트 이성주의 건강칼럼지(2008.5.26)에 따르면 요즈음, 운동을 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속보로, 심지어 인라인 스케이팅이나 등산까지 하며 출퇴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출근시 땀으로 인해 샤워할 때가 마땅치 않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출퇴근길에 걸거나 뛰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고유가 시대 자전거 타기, 자신의 건강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전거 코스는 탄천변이 제일



지난 6월 9일 탄천 고수부지, 수진동~서울시계까지 연결된 자전거도로면 1.3km 구간이 시가 조성한 유채꽃밭을 가로지르며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일주일 두세 번은 이곳으로 나온다는 김선식(66), 배진우(72) 어르신, 5-6년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나이가 드니까 마땅한 운동이 없을까 하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분과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무릎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매일 4-5시간씩 즐기고 있어요."

이날 만난 오선실(수정구 신촌3동·사진 위 오른쪽) 씨 등 분당여성회 회원 3명도 자전거모임에 소속돼 5년 이상 자전거를 즐겨왔다고 한다. "탄천변 도로도 좋지만 오래 타다 보니 자전거로 못갈 때가 없어서. 청계산을 비롯해 용인 에버랜드, 미사리는 물론 미시령 계곡, 평화의담, 제부도까지 자전거로 여행을 다녀요"라며 자전거 애찬론을 펼친다. "시간 나면 자전거 해보세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정말 좋아요."

성남시 관내에서 자전거 타기를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89개 노선 총 연장 275여km로 보행자와 공용할 수 있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형태다. 그중 워니 워니 해도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탄천변 코스가 제일이고 하대원 공판로에서 탄천까지 이르는 자전거도로도 길도 잘돼 있다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자전거연합회 관계자는 말한다.

현재 시 관내 자전거협회 소속 자전거인은 여성 600여 명, 남성 400여 명 등 1천명이 넘는다. 최근 자전거 인기가 늘어나면서 수요를 따르지 못해 자전거 품귀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초보자용으로는 보통 25만~30만원에서 좋은 것은 60만원 정도면 쓸 만한 국산자전거를 살 수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자전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자전거가 손에 익도록 못 타더라도 자기 자전거를 끌고 다니며 타보면서 친숙해져야 한다. 기본 안전장비를 갖추고 도로법 등 몇 가지 안전수칙만 배운다면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 Tip 알아두면 편해요!

자전거 배우려면 이곳에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교육장이 4곳 있다. 가까운 교육장을 찾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12시 초급, 중급으로 나뉘어 자전거 교습법을 가르친다.

- 수정교육장 | 모란장 뒤편 수정경인사업소 앞(탄천변) | 감사 지정호 011-414-3649
- 미금교육장 | 주택전시장 밑(탄천변) | 감사 이종택 011-714-3002
- 이매교육장 | 매송초등학교 앞(탄천변) | 감사 한성근 017-341-8585
- 분당교육장 |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앞(탄천변) | 감사 오태종 011-9983-6772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자전거연합회 729-4803



타이어 펑크 나면 이곳으로!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시 관내에 총 15개소가 마련돼 있다.

- 공기주입기 설치장소 : 태평역 6번출구, 둔전교 밑, 모란역 4번출구, 하대원동주민센터, 탄천종합운동장 앞, 황새울교 앞(자전거 면허시험장), 수내역 4번출구 앞, 정자역 1번출구 앞, 초립초등학교 옆, 중앙공원 내 호수 앞, 서현고가교 위(삼성프라자 앞), 청솔초등학교 내, 미금역 1번출구, 오리역 1번출구 총 15곳



자전거 보관하려면 이곳에!

출퇴근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거나, 잠깐 불임을 보여주고 자전거를 보관해야 할 때 이곳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주로 학교나 지하철역, 탄천 내 등 총 76개소에 6,1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돼 있다.

- 수정구 | 시청 삼거리, 태평역, 경원대역, 신흥역, 양지동·복정동주민센터, 둔전교 밑, 풍생중고등학교, 북정파출소 버스정거장 옆 등 58개소 436대
- 중원구 | 중원구청, 모란역, 수진역,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남한산성역, 공판로, 성남공고 등 96개소 842대
- 분당구 | 미금역, 오리역, 정자역, 수내역, 아람역, 서현역, 이매역, 정자교 밑, 분당계생병원, 차병원, 성남아트센터, 탄천종합운동장, 요한성당 입구, 중앙공원 등 562개소 4098대



자전거 마니아 | 태평4동주민센터 이귀완 주민생활지원팀장

자전거 출퇴근 6년... 5만여km 달려 "과체중, 성인병 걱정되는 분은 자전거 타세요"



태평4동 도로를 달리는 '행복 자전거' 멤버들

자고나면 차츰가는 기름값 때문에 직장인들이 사이에서 돈 안 드는 자전거 출퇴근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수정구 태평4동주민센터 이귀완 주민생활지원팀장(52·사진 오른쪽)은 벌써 6년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니 기름값도 아끼고, 운동을 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지요."

이 팀장과 자전거의 인연은 의외로 단순하다. 업무상 운동할 여가가 없어서 출퇴근시간을 활용해 운동할 목적으로 시험 삼아 자전거 페달을 밟은 것이 어느새 출퇴근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교통수단이 됐다.

이 팀장이 지난 6년 동안 자전거로 출퇴근한 거리는 5만여km, 집이 있는 수원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까지 약천후를 제외하고는 왕복 62km,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거의 매일 달린 셈이다.

이 팀장이 자전거를 타면서 달라진 것은 워니 워니 해도 건강,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고 고지혈증도 사라졌다. 때문에 이

팀장은 과체중으로 고민하는 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을 염려하는 이를 만나면 꼭 자전거타기를 권하는 자전거 전도사가 됐다.

이 팀장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섭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아직은 국내 교통시스템이 자동차 위주로 돼 있긴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맨오른쪽 도로 가로 주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야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어 운전도 중요하다"며 6년 무사고의 노하우를 알려줬다.

일반도로에서는 맨오른쪽 도로 가로·횡단보도는 반드시 내려서 건넌다

가족 모두가 자전거를 탈출 알기에 이 팀장네 교통수단은 자전거. 자전거 출퇴근 3년 만에 자신의 자동차를 처분했다는 이 팀장은 가끔 가족들이 자가용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아직은 자동차를 장만할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팀장은 아침 6시 40분경 수원 집에서 출발해 1시간 10분 남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출근길 여유를 즐기는데 그가 짊어 아름다운 자전거 길은 당연 탄천변이다. 계절 따라 피고 지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과 잘 가꿔진 잔디, 특히 수내동 근처 탄천변을 지날 때는 주변의 고층빌딩이 탄천 위에 비쳐서 프랑스 파리의 세느 강변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팀장은 매주 토요일이면 초등학교 10여 명으로 구성된 '행복 자전거' 멤버들(사진 왼쪽)과 자전거를 타는데 아이들이 그들자전거 타기를 하면서 체력이 약한 아이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협동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아이들과의 자전거 타기도 즐겁다고 말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전거여행을 떠나서 맘 풀고, 거리를 측정할 때도 항상 '저곳은 자전거로 몇 시간이나 걸릴까?'로 계산한다는 자전거 전도사 이귀완 팀장.

이 팀장은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곳은 지구 어디든 여행해 보고 싶은 꿈이 있다며 "집안에 있는 자전거, 보고만 있어서는 운동이 안 됩니다. 일단 페달을 밟고 나가보세요"라고 권했다.

중원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아줌마 파워, 파이팅!!

16년 만에 최초로 김기순 여성회장 취임

지난 6월 18일 오전 11시 중원경찰서에선 지역의 각계각층 내빈이 모인 가운데 제7대 중원 모범운전자회 신입회장 취임식이 거행됐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최초 여성회장인 김기순(54·사진 왼쪽) 씨로 겉보기엔 영락없는 여자의 모습이지만 호탕한 그의 웃음 속에는 여장부 기질이 보였다.

현재 160여 명의 회원이 속해 있는 '중원구모범운전자회'는 창립된 지가 올해 16년째로 일곱 번째의 신입회장을 맞았다. 운전경력 30년이 넘는 김 회장은 영업택시를 10여 년 하다가 모범운전자가 됐다고 했다.

“축하합니다. 최초 여성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기분이 어떤지, 또 각오 한마디 해 주세요.”

“여자라서 안 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사고지요. 오히려 여자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여자 스스로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개선할 것은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성 운전자로서 운전을 해오면서 특히 택시와 관련된 사고가 생길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다는 김 회장은 택시운전자로서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결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봉사가 사회질서의 기본”

홍보부장 양귀석 씨의 말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2년부터 모란역 부근에 위치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60여 명의 어르신에게 매달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하고 연말엔 7~8명의 독거 노인에게 20kg의 쌀을 전달하기도 한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어르신들을 태워 드려야 마음이 편하다”는 김 회장은 봉사가 몸에 배어 있는 듯했다.



중원모범운전자회에서도 대원사거리, 대원지구대 앞, 상대원시장삼거리, 신구대 앞, 중부초등학교 앞, 성호시장 등에서 매일 오전 7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모란 민속장날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다.

회원들은 또 정기적으로 장애인과 홀몸노인들을 위해 목욕봉사 후 점심을 대접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며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봉사란다.

2007년도엔 봉사부문 성남시 모범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 회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사실은 운전자 가족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든든한 자문인들과 함께 연구해 그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에 한 번 쉬는 날도 반납할 정도로 봉사가 기본이라는 김 회장. 그의 파이팅을 빌어 본다.

중원모범운전자회 홍보부 758-6545
이길순 기자 eks323@hanmail.net

통장님 통장님 우리 통장님 ⑥

대를 이어 수정구 북정동을 지키고 있는 2통장 양순이(49·사진 오른쪽) 씨. 성남과의 인연은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정동 토박이로 400년째 집터를 꿰뚫어 지키는 39대 종손 집에 맡겨느니라 시집왔다.

시부모님 모시고 두 자녀의 엄마로서 열심히 살던 중, 2004년 북정동 개발이 서서히 진행되어 가더니 원주민들은 하나둘 떠나고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유난히 옛것을 보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던 시부의 뜻을 받들어 2004년 통장 일을 시작하게 됐다. 북정동의 유래가 담긴 ‘복우물 유래비’(사진 아래)를 사비를 들여 손수 만들 정도로 ‘원뿌리’를 지키는 데 애착이 있는 시아버지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처음에는 서먹하기도 했지만 4년간 통장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주민들을 만나기만 해도 반갑고 즐겁다는 양 통장. 어려운 이웃돕기 대상으로 추천해 드렸더니 오히려 고맙다며 치약을 사들고 오신 어르신들을 잊을 수가 없다며 미소를 짓는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주민을 적극 발굴해 도와주는 한편



△ 시아버지가 사비를 들여 만든 북정동의 유래가 담긴 ‘복우물 유래비’

수정구 북정동 2통 양순이 통장 동네 토박이집 만며느리답게 ‘북정동 만언니’ 노릇도 ‘톡톡히’

“이기주의를 버리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 최선을 다하면 행복해져요. 내가 부모님께 잘하면 자식들도 본받아요.”

동네 수급자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는 등 ‘소리 없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는 게 주위의 평이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 최선을 다하면 행복해져요. 내가 부모님께 잘하면 자식들도 본받아요.” 양 통장의 삶의 철학이기도 하다.

그는 2년째 지체 5급(상지기능인 시부(76)를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에 모시고 다닌다. 부모님이 외출할 때면 그림자처럼 따르다 보니 어느새 지역주민의 본보기가 되었다. 최근 제36회 어버이날 효행자로 성남시장 표창을 받은 소감을 묻자 “그냥 내 부모니까 스스로 열심히 대했다”며 잘한 것도 없다고 말끝을 흐린다.

젊은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에 그는 듬직한 ‘북정동 만



언니’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새댁들과 세상사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런저런 상담도 해준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부모를 귀찮아하는 경우도 종종 봐요. 그럴 때마다 나중에 우리도 늙어 간다면 어르신들이 남은 생애를 편안히 사시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득시키기도 하죠.”

‘원뿌리를 지켜야 한다’는 시부를 존경한다는 양 통장은 자기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고 싶은 바람이 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부모, 남편, 딸, 아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다 크면,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해 보고 싶습니다.”

북정동 주민센터 729-5841/ 박문숙 기자 moons4326@hanmail.net

기자와 떠나는 성남역사기행 (6)



둔촌 이집 선생과 광주이씨



광주이씨 묘역



둔촌 이집 선생 영정



둔촌 사당

성남 지역에는 조선시대 이후 많은 세거문중이 있었는데 그 흔적들은 성남의 경기도지정문화재와 성남시 향토유적의 대부분이 묘역이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이런 많은 문중들 중에 중원구를 대표하는 문중으로서의 광주이씨 문중이 있다.

급년 5월 26일 중원구 하대원동에 소재하는 둔촌 이집 선생의 묘역일대가 경기도기념물 제219호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이는 중원구 최초의 경기도지정문화재다. 위치는 중원구 하대원동 243-11번지로서 인근 공단로와 인접해 있고 묘역 입구에는 최근 개관한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해 있어 도심 속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묘역은 1993년 8월 2일 성남시 향토유적 2호로 지정되었는데 이 묘역 인근에는 그의 손자 이장손, 증손 이극규, 이윤덕의 묘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둔촌 이집 선생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며 묘역도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어 기념물로 지정했으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이윤덕 묘(성남향토유적 7호)와 추모제 및 제사를 둔촌 이집 묘역의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해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윤덕 묘역의 묘표는 재질은 현색 화강암제로 그 옥개석은 운문 속에 용 몸통의 비늘과 좌우 용두가 양각되어 있는데, 큰 눈에 머리의 뿔과 턱의 수염 등이 해학적이다.

둔촌 이집 선생은 고려 말 성리학자로, 조선시대 명문가로 꼽히는 광주이씨의 중시조다. 1327년 광주에서 태어나 충목왕 3년에 문과에 급제해 해박한 지식과 고상한 지절로 이름난 인물로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고려 후기로 중국 남송 시기 완성된 주자성리학이 원을 통해 들어오게 되자 당시 고려시대의 기존 지배층인 권문세족과는 다른 새로운 신세력으로 성리학을 근간으로 정치에 등장한 세력이 신진사대부이고 이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 관료로 진출, 후일 조선 건국의 주역들과 조선 초기 사립들의 근간이 된다.

이집 역시 이 시기에 등장한 성리학자이자 신진사대부들의 중심적 인물 중 한 사람으로서 그는 1368년(공민왕 17)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당시 왕의 신임을 받아 강력한 권력으로 개혁을 추진하던 신분을 비판해 화가 미칠 것을 예견하고 부친과 함께 피신해 경상도 영천 최원도의 집에 4년간 숨어 지내게 되고 부친상 역시 이곳에서 맞이했다. 1371년 신분이 실각된 후 개경으로 돌아왔으나 잠시 판전교시사로 있다가 곧 사직하고 이후 생의 대부분을 여주 은둔생활로 보내게 된다. 둔촌이 은거하였던 광주지역은 오늘날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연원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입심문을 비롯한 60명에 달하는 많은 인물들과 시로써 교류했다. 그는 당시의 신진사대부로 고려 말 정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복은 이색, 포은 정몽주, 도은 이충인의 이른바 '삼은'을 중심으로 김구룡, 정도전 등과 깊이 교류하는 사이였으며 그들이 주고받은 다수의 시를 통해 그의 학문적 소양과 당대 인물들과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둔촌의 저서로는 둔촌집이 남아 있고, 그의 시는 꾸밈과 우회보다는 직서체에 의한 자연스럽고 평이한 작품이 많았다.

성남시는 이번 도지정문화재 지정 이전에 둔촌 이집 묘역을

향토유적 2호로 지정한 바 있고 2006년 3월 27일에는 둔촌 이집의 후손(아들 탄천 이지직 외 8명)의 묘역을 성남시 향토유적 7호(분묘 9기, 석물 30점)로 지정한 바 있다.

둔촌의 후손들 광주이씨 가문은 그의 아들 지직, 지강, 지유(柔) 삼형제와 그의 손자 8명도 과거에 급제해 모두 고위관직에 오르는 등 조선시대에 이르러 광주이씨는 180여 명의 문과 급제자와 150여 명의 무과 급제자를 배출하며 조선 최고의 명문가로 발달하였다.

둔촌의 자손들은 관직생활에서도 정도를 지켰는데 그 대표적인 후손이 아들 이지직으로 세종시기 청백리로 복선됐고 영의정을 지낸 증손자 극배는 고관으로 공신이 됐음에도 청렴하고 소박한 생활로 명성을 얻었다. 청백리 이지직은 벼슬에서 물러난 후 탄천에 은거하였는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탄천 선생이라 불렀다 한다.

둔촌 이집과 그의 후손들은 경기도 광주를 관향으로 한 역사적 인물들로 한 문중의 차원을 떠나 성남시를 대표할 만한 역사적 인물들이다.

전미향 기자 mhchun@cans21.net

테마 기행 <향토 문화 음식>



'지역 브랜드, 닭죽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예부터 조상들은 신선한 여름 과일과 뜨거운 음식을 먹고 산속 계곡 물에 발을 담그는 닭죽을 즐겼다. 뜨거운 음식으로 몸을 보하고 닭죽을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남한산성이다.

산성역에서 200여 미터 올라가면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입구에 '닭죽 민속마을'이 있다. 1970년대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인 은행동에 자리 잡은 닭죽집들이 지역 개발로 1998년 단대동 남한산성 입구로 이주해 자생적으로 닭죽촌을 이뤘다.

복골별장부터 용궁가든까지 22여 개의 '닭죽 민속마을'을 포함한 남한산성 일대 40여 개의 닭죽 집들은 닭 요리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더위를 이기고 몸을 보하는 각종 한약재를 넣어 만든 닭백숙과 영양식들은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충족시켜 먹는 즐거움을 주는 성남의 대표 먹거리이자 지역브랜드가 됐다.

곧 더위를 '꺾는다'는 복(伏)이다. 가족과 함께 남한산성에서 닭죽을 먹고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오솔길인 '논골민속길'을 따라 산책하며 조용한 도심 양지공원에 들러 자연을 즐긴다면 더위를 꺾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조민자 기자 dudlfk@hanmail.net

11만8,677평의 양지공원은 넓은 주차장과 다목적 천연잔디구장, 체육시설,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과 3만8천여 가지의 다양한 식물이 있는 자연학습장 등이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특히 산새와 잘 어울린 정자, 양지정의 연못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섬의 소나무와 꽃들은 정자를 더욱 아름답게 한다.



2001년에 조성된 남한산성 유원지는 다목적운동장과 꽃동산, 민속공예박물관,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놀이마당 등이 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발 지압장'과 시원한 계곡물을 막아 만든 '물놀이장'이 있다.



<닭죽 민속 마을> 1. 복골별장 2. 초원의집 3. 등나무집 4. 일번지 5. 전주가든 6. 유정집 7. 장미담집 8. 동산가든 9. 량랑집 10. 대궐 11. 대청마루 12. 맛 따라 길 따라 13. 보리수 14. 부영정 15. 초가집 16. 사랑방 17. 한국관 18. 노다지 19. 황금정 20. 강산촌 21. 정일품 22. 용궁가든

<논골 민속 길 따라> 23. 산수화 24. 산성옥 25. 산촌 26. 용해회관 27. 여명사철탕 28. 등나무회관 29. 봉선정 30. 청실홍실 31. 옛날 욕쟁이 장미담집

<남한산성 유원지> 32. 낙원식당 33. 은성가든 34. 옛날 촌담집 35. 오동나무집 36. 논골 감나무집 37. 서편제 가든 38. 송죽천

기획연재 **공공디자인(6)**

성남시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도시의 경관, 색채 등의 이야기 12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리즈는 도시경관의 경쟁력인 색채계획입니다.

색채계획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중해의 푸른빛 바다와 흰색 건물들이 언덕에 모여 있는 그림 같은 풍경을 본 적이 있는가? 이곳은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은 세계적인 관광지 그리스의 산토리니이다. 오랫동안 색채, 건축물의 높이, 집을 짓는 재료들의 기준을 만들고 지켜온 공동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같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진>

일본의 요코하마는 항구에 있던 오래된 빨간 벽돌 화물창고를 없애는 대신 쇼핑몰로 리모델링하여 매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빨간 벽돌 색은 요코하마 건축디자인의 기본색조로 활용되는 도시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다. <사진2>

아름다운 색채 환경은 도시경관의 경쟁력!

유럽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색채를 건축물과 시설물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공공디자인에서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이미지와 도시경관을 좌우하는 도시의 경쟁력이다. 주변과의 관계성이 고려된 색채계획으로 내 건물만 눈에 확 띄는 색상을 적용하기보다는 어우러져 돋보이는 경관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목적과 쓰임,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색채 계획이 필수적이다.

당장 눈앞의 나무를 보기도 하는 큰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도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김정현 성남시청 도시산업디자인팀 전문디자이너



▲ 프랑스, 신개선문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의 개선문과 일직선상에 위치한 신개선문은 개선문의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화려한 색채도 장식도 없는 흰색대리석의 단순한 색채와 심플한 외관만으로 상징적인 랜드마크의 의미를 갖는다.



<사진 1 그리스, 산토리니 섬>

산토리니의 경관색채는 섬이라는 특성을 살려 계획되었다. 흰색의 건물들과 푸른빛의 바다가 어우러져 이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냈다.



<사진 2 일본, 요코하마, 아카렌카 소고>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살려 쇼핑몰로 리모델링되었다. 기념품 가게, 레스토랑 등이 입점해 있고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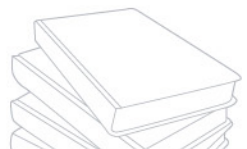
◀ 서울, 리움미술관

우리나라 전통적 이미지 흙과 도자기를 은유적 표현 (과거), 금속과 유리를 사용한 모던함 (현대), 검은색 콘크리트를 사용한 미래 등 세련된 감각 (미래), 세계적인 건축가 3인의 개성이 어우러진 건축물로 나지막한 건물은 우리네 전통적 마을을 형상화하듯 편안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뒤 배경의 높다란 건물이 파란 하늘을 향한 시선의 단절을 가져와 아쉬움이 크다.



◀ 일본, 후쿠오카

다양한 색을 사용하되 톤을 비슷하게 맞추어 현란하지 않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룬다. 시선의 부담을 주지 않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색채를 적용한 거리 풍경



분당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감추고 싶은 비밀

이동 | 김태광 | 그린북 | 2008

평범한 초등학교 4학년인 소희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생활하지만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 바로 엄마 얼굴의 화상흉터를 친구들이 놀리고 자신을 따돌릴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시작한 거짓말이 하나씩 소희를 힘들게 하고, 엄마와의 관계도 어색해져 방황하게 된다.

부모의 사랑의 크기보다는 배경과 외부조건에 민감한 요즘의 아이들. 이 책을 통해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를 이해하는 배려심도 배울 수 있다. <사서 안미아>



책을 읽는 방법

청소년 | 히라노 게이치로 | 문학동네 | 2008

저자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위한 속독과는 대조적으로, 깊게 봤을 때 자신의 삶에 진정 도움이 되는 '슬로 리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한 글 읽기가 아닌, 그 맛을 음미하고 즐거운 책 읽기를 체험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 책과는 거리를 두거나 독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이들, 혹은 책을 읽는데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보다 중요하게 만들 독서 방법의 하나로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사서 김유경>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일반 | 기욤 뽀스 | 밝은세상 | 2007

이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시간여행에 빠져들게 한다. 예순의 주인공과 서른의 주인공이 동일인임에도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가의 상상력은 기발하다. 숨어있는 자신만의 감수성을 이끌어내어 주인공의 이야기에 빠져들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가슴 뭉클하고 따뜻한 이야기다. <사서 유진희>



우리는 사랑일까 (여러 가지 빛깔의 사랑이야기)

테마 | 알랭 드 보통 | 은행나무 | 2005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를 유쾌하면서도 철학적으로 표현했다. 연애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겪게 되는 소중한 감정, 심리적 갈등을 다양한 주제를 통해 현학적으로 분석해 흥미롭게 그린 소설로 다른 연애소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이 꿈꾸는 낭만적인 사랑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고 성숙한 사랑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세밀한 심리묘사로 나타내고 있어 독자에게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사랑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읽으면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서 여은미>

소비자 Q & A



신문구독 중도 해약 시 해결 기준

Q 2007년 10월경 1년 동안 신문을 보기로 하고 구독계약을 하였습다. 계약 당시 2개월 무료구독과 함께 사은품으로 선풍기를 받았습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문 구독을 중지하려고 합니다. 신문보급소에서는 1년을 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중도해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까지 구독한 기간 9개월 중 7개월분만 구독료를 낸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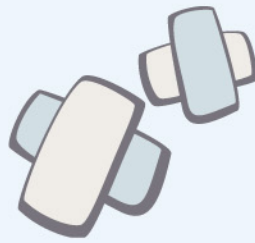
A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문구독 계약을 하면서 2개월 초과 무가치 제공, 경품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 공정경쟁 규약 상 부당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중도해약 시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내 라면 2개월분의 구독료를,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분 구독료를 내야 합니다.(유료구독기간이 1개월 미만 해약 시는 1개월분)

따라서 소비자는 유료구독기간이 7개월이므로 2개월간 무료구독 했더라도 1개월분의 구독료만 내고 중도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품으로 받은 선풍기 값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

응급의료 119 안면 열상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응급센터로 오는 환자 중, 성형외과를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안면부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이다. 집안에서의 안전사고를 비롯해 작업장에서의 사고, 길 가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 등 수많은 원인으로 안면의 열상을 입어 응급센터로 내원한다.



얇기 때문에 촘촘하게 봉합하면 오히려 피부가 죽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 번째는 초기 안면봉합수술 이후 상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이다. 봉합사를 제거하는 시기가, 봉합사 제거 후 흉터가 잘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의 봉합 직후나 봉합사 제거 이후 가피(딱지)가 계속 남게 되는데, 이 가피를 외부적인 힘으로 떼어내게 되면 이후 반흔이 남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봉합술을 시행한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하기 전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흉터의 발생 여부인데, 흉터 없는 상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다만, 흉터의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며, 성형수술의 여부도 개인차가 많고 성숙되는 과정의 차이가 있어 흉터가 성숙된 이후(최소 6개월~1년)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형수술로서 흉터가 없어지는지도 많이 물어보는데, 성형수술은 흉터를 완전히 없애는 치료가 아닌, 큰 반흔을 작게 또는 눈에 잘 안 띄게 만드는 수술이다.

응급진료 문의 7995-599/ 성남중앙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추용식

○... 응급의학과 의사가 가장 주의해서 보는 점은 안면의 주요 구조물 손상 여부다. 안면신경·이하썸관·동반골절을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하며, 연부조직의 손상·피부결손 여부·이물질 함유여부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상처의 상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흉터가 얼마나 생길지는 가장 나중에 보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향후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 안면신경, 이하썸관, 안면골의 동반골절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하며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신경접합이 필요하고, 연부조직의 손상이나 피부결손의 경우 응급일 필요는 없으나 추후 피부이식술, 국소피판술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상처가 비교적 깨끗하고 이물질의 함유가 없는 안면부의 열상은 응급센터에서 봉합할 수 있으며 수술 전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상처의 세척이 중요하다.

○... 환자나 보호자가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흉터에 대해서는, 그 예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다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깨끗한 날카로운 칼에 그어져서 생긴 깨끗한 상처가 예후가 가장 좋을 수 있고, 둔기에 의해 으스러져서 생긴 상처나 마찰에 의해 피부가 결손이 생기며 깊이 팬 상처가 예후가 좋지 못하며 시술 후 반흔(흉터)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 상처의 모양도 중요한데 직선으로 생긴 상처는 둥그렇게 생긴 상처보다 훨씬 결과가 좋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봉합했는가이다. 사실,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서도 안면열상을 성형외과 전문의가 봉합해 주는 곳은 없다. 야간이나 주말에는 더욱 그러한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도 성형외과 전공의가 봉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안면부 봉합에 경험이 많고 익숙한 의료진이고 초기봉합에 자신이 있다면 봉합의 예후에 있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촘촘하게 했는지, 듬성듬성 했는지, 어느 것이 흉터를 적게 남기는지는 상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안면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촘촘하게 봉합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은데, 예를 들어 비스듬히 포 뜨듯이 얇게 생긴 안면상처는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건강한 여름나기 | 유행성 눈병 주의



예년보다 고온다습한 기후 탓인지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일명 아폴로눈병)이 크게 증가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등 유행성 눈병 주의보가 내려졌다.

유행성눈병이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병되는 질병으로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이 대표적이다.

눈병을 예방하려면 △항상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수도물에 손을 자주 씻고 △눈병환자와 수건이나 이불, 세숫대

야, 개인 소지품(컵, 필기도구 등)을 같이 사용하지 않으며 △눈에 부종, 충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환자인 경우에는 △전염기간(약 2주간) 동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눈을 되도록 만지지 않으며 △수영장,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은 삼간다. △끓일 수 있는 것은 끓여서 소독하고, 책상, 컴퓨터 자판, 마우스 등을 5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이용하여 닦고 △안대는 눈의 온도를 높여 세균증식을 유발시키므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용하지 않으며 △과일·채소·물을 충분히 먹고 충분한 잠을 자고 △치료를 안약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수정구보건소 질병관리담당 729-3861~3

건·강·게·시·판

암 조기검진

대상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50% 하위자(2008년 국가암조기검진 안내문을 받은 모든 분)로 검사항목은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다.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올 12월 31일까지(검진 사전예약) 개인부담 없이 검진받을 수 있다. 암조기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이 발견되면 치료비도 일부 지원된다.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729-3853/3912/3972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무료 암 검진 대상자로서 암 확진자를 비롯해 의료급여 암 환자, 폐암 환자, 소아 암 환자(1990.1.1 이후 출생자)는 의료비를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729-3854/3913/3972

장티푸스 예방접종

급성 전신성 열성질환인 장티푸스는 고열·복통·무기력증·두통 등의 증상을 가진 제1군 법정 전염병(수인성 전염병)이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를 비롯해 가족 등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성남시민은 접종비가 무료다.

수정구보건소 예방접종실 729-3845~7

정화조 모기(유충)방제 및 소독 지원

6월 1일~10월 30일(5개월)간 대형시설(건축물) 정화조 및 집수정에 모기(유충) 발생시 신고하면 방역기동반이 출동, 모기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또 생활주변 비위생적인 곳을 소독하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수동식 분무기 등 소독기와 살충·살균제 희석약품 등을 수시로 지원한다.

수정구보건소 질병관리팀 729-3862

<1면에 이어>



| 2008년 신설 물놀이장 |

번호	물놀이장명	위 치	주요 시설	개장 예정일
1	단 대 공 원	수정구 산성동 509, 510번지 일원	벽천분수,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2008.6.27
2	영 장 공 원	수정구 태평4동 산47-1 일원	·	2008.7.4
3	은 행 공 원	중원구 은행1동 산62-1 일원	·	2008.7.1
4	능 골 공 원	분당구 정자2동 103번지 일원	·	2008.7.8
5	양지동놀이터	수정구 양지동 62번지	·	2008.6.30
6	성남동놀이터	중원구 성남동 2566번지	·	2008.6.30
7	금광1동놀이터	중원구 금광1동 634번지	·	2008.6.30

| 기 조성된 물놀이장 |

번호	물놀이장명	위 치	주요 시설	개장일
1	희망대공원 물놀이장	수정구 신흥동 2440번지	벽천분수 등 8종	2008.6.20
2	자혜공원 물놀이장	중원구 금광2동 2687번지	벽천분수 등 8종	
3	남한산성계곡 물놀이장	중원구 은행2동 81-1번지	계류 등 2종	
4	중동 물놀이장	중원구 중동 1436번지	워터슬라이더 등 4종	
5	산성동 물놀이장	수정구 산성동 2115번지	워터슬라이더 등 7종	
6	수진2동 물놀이장	수정구 수진2동 3030번지	워터슬라이더 등 7종	
7	상대원2동 물놀이장	중원구 상대원2동 3393번지	워터슬라이더 등 9종	
8	태평동 물놀이장	수진동 삼정아파트 앞 탄천둔치	물놀이장, 모래사장, 발자압장, 비치발리볼장	
9	아탑동 물놀이장	아탑동 만나교회 앞 탄천둔치	물놀이장, 모래사장, 발자압장	
10	정자동 물놀이장	신기초등학교 정자역 앞 탄천둔치	물놀이장, 발자압장	
11	금곡동 물놀이장	구미동 불국중학교 앞 탄천둔치	물놀이장, 발자압장	
12	운중천도성지	이매2동주민센터 앞 운중천 둔치	물놀이장	
13	맹들공원	분당구청 뒤 탄천둔치	물놀이장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쓰레기 분리수거함 시각적으로 개선

몇 해 전 일본여행을 다녀온 우리 가족은 검소하며 환경을 아끼려 부단히 애쓰는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낀바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가 쓰레기 분리수거였다. 그들은 우리보다 종류를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병에서 분리한 병뚜껑마저 따로 모아두고 있었다.

거기 비하면 우리는 비록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 통이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음에도, 집안에서부터 제대로 분리하지 않다 보니 막상 단지 내 분리수거함에 넣으려면 손이 많이 가고 대중 아무 데나 넣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집안에 두던 분리수거함 개선이었다. 바쁜 일상의 남편과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재활용 물건을 제대로 분리하기 위해 각각의 분리쓰레기 특성에 맞는 수거함을 비치했다. 즉, 신문 종이 등을 담기 위한 라면상자를 하나 두고, 예전 아이들 블록을 담아두던 플라스틱 상자는 가운데 분리 판을 뒤서 플라스틱과 비닐을 담도록 했다. 시골에서 구해온 양은 대야는 쇠붙이 재활용품을 담아두도록 했고, 전에 어

항으로 쓰던 투명 플라스틱 통은 병이나 캔을 넣게 했다.

이렇게 환경을 바꿨더니 집안에서 쓰레기를 담을 때 예전처럼 막연히 재활용 봉지를 뒤적여가며 종류를 구분할 필요 없이 즉시 분리수거 통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전에는 단지의 분리수거함 앞에서 또 다시 분리해 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게 싫어서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를 꺼리던 가족들이 각자 새로이 부여 받은(?) 임무에 따라 기꺼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무게가 나가는 종이를, 병이나 캔은 아들이, 그리고 플라스틱과 비닐은 딸이 맡았는데, 쓰레기가 뒤섞이지 않으니 그냥 분리수거함에 담기만 하면 돼 일이 한결 줄어들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라면이나 찌개 국물 등은 싱크대에 흘려보낼 경우 하수를 오염시킨다. 가능한 이 국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최선이고, 차선은 이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것이다. 이 정도만 실생활에 응용해도 우리의 생활쓰레기는 한결 줄어들고 환경은 더 맑고 깨끗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상호·분당구 서현동



쓰레기봉투에 끈 달자!

살림을 하다보면 한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하는 것이 주부들 마음이다.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최대한 구겨 넣어 봉투 값을 아껴보려고 한다. 하지만 쓰레기봉투에 끈이 없어 묶을 때 매우 불편하고 위쪽까지 쓰레기를 꽉 차게 담기 어렵고, 그나마 꽉 차게 담을 경우 주둥이를 오므릴 방법이 없어 쓰레기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결국 봉투 윗부분에 쓰레기를 더 담는 것을 포기하게 되므로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결국 비닐로 된 쓰레기봉투의 사용량 증가를 부르게 되니 손해가 맞긴 하다. 또한 봉투가 꽉 차서 버릴 때까지 쓰레기봉투는 24시간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도 악취가 주변에 퍼지게 된다. 한 여름에는 날파리와 개미들까지 꼬여 여간 불결한 게 아니다.

작년 7월 말의 일이다. 쓰레기봉투 위쪽에 다 아이들이 거봉 포도 씨를 버렸던 모양이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3월 만에 돌아왔더니 온 집안이 날파리와 개미 천지였다. 달콤한 포도의 향을 찾아 날라 다니는 벌레의 종류는 죄다 모여 집안으로 들어온 듯했다.

일전에 가본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끈 달린 쓰레기봉투가 나와서 쓰레기를 조금 넣어 끈으로 묶어두었다가 다시 풀어서 마저 채운 후에 버리는 방식을 쓰고 있었다. 쓰레기도 충분히 넣을 수 있고, 쓰레기를 완전히 채워서 버릴 때까지 가정 내에서 악취와 날파리 등이 꼬이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 쓰레기봉투를 갖다 버릴 때도 여간 편리한 게 아니었다.

끈 있는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거나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시에서도 하루빨리 쓰레기봉투에 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비닐로 만들어진 쓰레기봉투의 사용량이 크게 줄어든다면 그것이 바로 환경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

한선희·수정구 산성동



환경오염 줄이는 주부들의 생활습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주부들인 것 같다. 생활하면서 알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습관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해본다.

1. 일회용 기저귀 대신 천기저귀를 사용한다. 일회용 기저귀가 제일 안 써여 완전 분해되는 데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집에서 아기를 볼 때는 천기저귀 사용하면 기저귀 값도 줄이고 아기의 허벅지가 짓무르지 않아서 좋다. 요즘 빨기 쉽고 간편하게 나온 천기저귀도 있고, 천기저귀를 빨래해주는 대행업체도 있다고 한다.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더라도 친환경 기저귀(황토 기저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다.
2. 수도꼭지, 양변기, 샤워기 등을 절수형 제품으로 사용하면 물소비량을 10~30% 정도 줄일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수도를 틀 때 물이 팔팔 쏟아져서 아까운 물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빨래한 물을 통에 받아 댔다가 걸레를 빨거나 바닥 청소를 한다면 수도요금 많이 줄일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화장실은 수도꼭지를 절수형으로 모두 바꿔야 물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3. 가족조각은 탁상이나 식탁 위에 놓는 전기스탠드나 재떨이 밑에 붙여서 쓰면 편리하다. 요즘 버리는 옷이 가정마다 너무 많은데 헌옷 및 담요는 다리미대로 이용하고, 헌 스웨터의 소매와 허리는 양변기 커버 씌우기로 사용하면 된다.
4. 빈 커피 병뚜껑은 부엌 찬장 밑에 고정시켜 조미료 통 등을 넣는 장치로, 또 랩이나 호일 속대는 스카프 말이나 줄업장 케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
5. 동네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에 큰 통을 준비해 두어 가정과 식당에서 나오는 식용유 기름을 그곳에 모아 버리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큰 통에다 직접적으로 쏟아 붓지 말고 가정이나 식당마다 기름을 페트병에 버려 그것을 한 데 쓰레기 모아두는 장소 큰 통에 버리면 더 깨끗할 것 같다.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면 기저귀나 양말을 빨 때도 때가 잘 간다.

이정은·중원구 하대원동

탈퇴한 인터넷 회선 회수해야

얼마 전 일이다. 쿵하는 소리에 나가 보니 월담을 해서 옥상을 오르는 남자가 있었다. 누구냐고 물으니 인터넷 전용선 설치 기사라고 했다. 무슨 경우냐고 항의했더니 요즘 빈집이 많아 대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월담한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그대로 이집 저집 옥상을 오가며 전용선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 집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 연결을 위한 월담인지라 화도 나고 해서 잠시 지켜보면 중 사용하지 않는 회선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늘려져 있는 걸 발견했다. 여러 세대가 살다보니 이주할 때마다 인터넷, 전화, 유선방송 등 회선을 변경하니 그때마다 사용하던 회선은 그대로 둔 채 새롭게 설치할 하니까 그렇게 거미줄처럼 어지러운 것이다.

이렇게 어지러운 회선은 쾌적한 주거환경 방해는 물론 미관상 더더욱 좋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회선 탈퇴한 회선은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다. 언제쯤 모든 선들이 지중화돼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업체가 조금씩만 배려해주면 깨끗한 환경이 될 거라고 여러 사람이 공감할 것 같다.

오택순·수정구 산성동

장마대비 시민행동요령

-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나 등을 준비해둡시다.
-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 둡시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나 무릎 위로 물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걸어 다니지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 주택의 하수구와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시다.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둡시다.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 가로등·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재난안전관리과 방재팀 729-3553



| 독자마당안내 |

- 다음호는 '성남에서 가진 기억에 남는 여름휴가'를 소개해 주십시오. 매월 10일까지 원고지 5매 이내.
- 성남지역의 풍경이나 사람들 이야기를 담은 사진(디지털)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사진 설명 첨부). 채택된 사진은 다음호 <비전성남>에 게재.
- 숨은 그림 작품모집 : 독자가 그려서 응모하는 작품으로 꾸며 집니다. ※이번호 독자가 그린 숨은 그림찾기는 쉽니다.
- 채택된 작품은 약간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소·연락처 기재)
보내실 곳 <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
snvision@cans21.net

정보나눔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은 홈페이지(www.cans21.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전성남시정소식 안내)
보내는곳 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성남시청 공보담당관실 <비전성남> 편집실 | 전화 729-2075~6 | 이메일 snvision@hanmail.net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위한 일제정비기간 운영

- 기간 : 7.1 ~ 11.30(5개월간)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대상 :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분
- 신청자격 : 본인,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 준비사항 : 신분증(대리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 도장)
- 혜택 : 무료 관련 공부 정정 지원
- 민원여권과 민원제도팀 729-2372-3

청소년 신규 주민등록증 2·4주 토요일 발급

- 발급기관 : 신흥2동, 은행2동, 정자1동 주민센터
- 운영시간 : 매월 둘째 · 넷째 토요일 10:00 ~ 14:00
- 대상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예정 17세 청소년
- 운영시기 : 2008년 7월 12일부터
- ※ 신규 주민등록증은 17세가 되는 달을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한다.
- 신흥2동 729-5624, 은행2동 729-6705, 정자1동 729-7685

대부업 등록갱신 기간안내

- 대상 : 등록된 대부업체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관할 등록청에서 등록갱신 해야 함.
- 등록갱신 마감 : 2008.7.31(등록수수료 : 없음)
- 준비물 : 대부업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 생활경제과 729-2574

풍수해보험 안내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 보험기간 : 1년
- 보험가입자 : 주택, 온실, 축사 소유자
- 재난안전관리과 729-3553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7월 프로그램

- 가족상담입상능력향상교육 [7.3/10/17/24(목)] : 대상관계 가족치료
- 부모집단미술치료 [7.4(금)] : 자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기
- 부부갈등해결 교육 [7.10/17/24/31(목)] : 잘 싸우고 잘 화해하기
- 자녀와의 관계개선 부모집단상담 [7.11/18(금)] : 나 바로 알고 자녀 바라보기
-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755-9338
www.family.go.kr

제3기 문화의집(성남·서현) 무료 수강생 모집

- 접수 : 6.23~27(선착순), 홈페이지 참조
- 성남문화원 756-1082

여성주의 역량강화 집단 상담(무료)

- 일시 : 6.23~7.16
- 대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자녀
-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센터 751-2050

2008년 무료취업훈련 안내

- <여성부 지원 유치원 보조교사 양성과정>
- 일정 : 7.2~8.25(자부담 10만원)
- <노동부 지원 피부미용관리>
- 일정 : 7.7~10.31
-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718-6696

다문화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 봉사내용 : 학교, 어린이집, 시민대상 다문화사회 교육 활동
- 봉사자격 : 결혼이주여성 및 교사경력자, 관심 있는 분
- 성남YWCA 701-2503

제5회 「경기도 재활용품 공모전」

- 접수기간 : 7.1 ~ 8.8
- 공모분야 : 실용부문, 예술부문(1인 1작품)
- 공모대상 : 초등부, 중 · 고등부, 일반부(대학생)
- 작품주제 : 자유(재활용품 이용)
- 작품규격 : 가로 · 세로 각 1m x 높이 1.5m이내, 중량 10kg이하
- 자격 : 7.1 현재 성남시 거주자
- 방법 : 거주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접수
- 입상작 발표 : 8.27 (경기넷 게시)
- 시상 : 도지사상 6명, 도 교육감상 36명, 도의회 의장상 18명
- 성남시청 청소년과 729-3204

성남시 수출보험(보조)로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300만원 이내
- 보험종류 : 4종류(단기수출보험, 선적 전/후 수출신용보증보험, 환원동 보험)
- 신청방법 :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보험 가입->성남시에 신청서 제출->업체에 지원금 교부
- 보험공사 : 본사(02-399-7437)/ 강남지사(02-551-0481)/ 경기지사(031-259-7602)
-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규팀 729-2645
E-Mail : sally371@cans21.net

외투기업 CEO를 위한 노동법 상담

- 대상 : 외국인 투자기업을 상대 노동법령 · 제도 상담 및 고충처리
- http://english.molab.go.kr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02-950-9712

6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
- 납기일 : 6.16 ~ 6.30
- 납부장소 : 성남시 관내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전국 농협, 우체국
- 납부방법 : 텔레뱅킹(거래은행 보안카드 필요),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납부
- 구청 세무과 : 수정구 729-5150~4, 중원구 729-6150~4, 분당구 729-7150~5

기초질서 위반 계고 및 단속 실시

- 홍보기간 : 2.20 ~ 연중
- 집중단속 : 4.21 ~ 연중
- 단속항목 : 오물투기 등 경범 및 민생침해 범죄
- 성남중원경찰서 생활안전과 733-0012

마음그리기 미술치료

- 대상 : 장애아동, 방학중 미술치료를 원하는 아동, 자녀와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부모
-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 745-0206

어름방학 특강 무료 수강생 모집

- 모집대상 : 성남시 거주 초등학생 및 유아
- 모집인원 : 170명, 1인 1강좌 수강원칙
- 모집기간 : 7.8(화) ~ 접수마감까지
- 강좌 : 재미있는 과학실험(6~7세), 오밀조밀 점토교실(초등 1~2년), 생각이 커지는 북아트교실(초등 2~3년),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책읽기(초등 2~3년), 차세대 리더십(초등 4~5년), 보삼아 놀자(초등 4~6년), 컴퓨터로 나만의 앨범 만들기(초등 1~3년)
- 등록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ct.snlib.net/)
- 성남시중앙도서관 729-4642

학원 수강료 증도 해지 환불규정 안내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80-215-9898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 시행시기 : 2008. 7. 1(화)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 후 8월부터 본격 시행)
- 시행구간 : 오산IC ~ 한남대교 남단(44.8km)
- 운영시간 : 06:00 ~ 22:00(16시간)
- 통행대상차량 : 9인승 이상 승용 · 승합자동차 (9~12인승은 6인 이상 탑승시 허용)
- 위반시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30점
- 교통지도과 버스정책팀 729-3715

“2008 사랑의 스के일링 행사” 안내

- 행사기간 : 2008.7.~9.(3개월)
- 참여방법 : 5만원 후원시 스के일링 참여증 1매
- 참여증 수령한 개인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에서 참여처와 검색 후 예약
- 장애인의 치료치료를 돕기 위한 비영리 사업
- 스마일재단 사무국 02-2009-2836
www.smilefund.org

여성복지회관 전문기술교육 개강



7월 8일 오전 11시 여성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제45기 전문기술교육 개강식이 있다. 7월 8일~12월 20일 5개월간 사회문화(회화 등 6개), 전문과정(한식조리기능사 등 13개), 컴퓨터(5개) 등 총 3개 부문 24개 강좌가 진행된다. 이날 전 경희대 교수 김정희 강사를 초빙, 특강 ‘21세기 성공하는 여성’도 갖는다.

가족여성과 복지관운영팀 729-2952

여성실버대학 무료 수강생 모집

- 모집대상 : 60세 이상(성남시 거주 여성)
- 교육기간 : 8.12 ~ 12.13(어름방학 7.28~8.9)
- 접수기간 : 7.18 ~ 8.11(선착순)
- 모집과목 : 컴퓨터(초 · 중급) 60명, 한글교육 30명, 한문(초 · 중급) 60명, 일어회화 20명, 종이공예 30명, 노래교실 400명, 스포츠댄스 100명
- 여성복지회관 729-2951-6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

결혼이민자여성 생활적응교육 수강생 모집

- 모집대상 : 성남시 거주 결혼이민자 여성
- 교육기간 : 8.12 ~ 12.13(5개월 과정)
- 접수기간 : 7.18 ~ 8.11(선착순 마감)
- 모집과목 : 한국어(첫걸음) 25명, 한국어(초 · 중급) 50명, 생활요리교실 30명
- 수강료 : 무료
- 준비서류 : 수강신청서(접수장소 비치),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 증명서
- 여성복지회관 729-2951-6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

2008년 7월 시민정보화 무료 교육 안내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수정구청	성남시민	파워포인트	6.30 ~ 7.11	09:00~10:30	22	2008.6.16~마감시까지 전산통신팀(4층) (☎729-5075)
			6.30 ~ 7.11	11:00~12:30	22	
			6.30 ~ 7.11	13:00~14:30	22	
			7.21 ~ 8.1	09:00~10:30	22	
			7.21 ~ 8.1	11:00~12:30	22	
중원구청	성남시민	한글반	7.7 ~ 7.25	10:00~12:00	30	2008.6.16~마감시까지 방문, 홈페이지 접수 (☎729-6078)
			7.7 ~ 7.25	13:00~14:30	22	
분당구청	성남시민	컴퓨터 기초	7.7(7.28~8.15) ~ 14.7(12.22~12.31)	오전반 (10:00~12:00)	708	7.21(월)부터 선착순 컴퓨터 기초는 전화접수 나머지는 인터넷 접수 전산통신팀 (☎729-7074~5)
				오후1반 (13:00~15:00)		
				오후2반 (15:30~17:30)		
				오피스 기초		
수정도서관	성남시민	파워포인트	7.1 ~ 7.24	화~금 09:30~11:00	30	2008.6.26~6.28(선착순) 방문, 홈페이지 접수
			7.1 ~ 7.24	화~금 11:30~13:00	30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수정도서관	성남시민	WORD	7.1 ~ 7.24	화~금 14:00~15:30	30	(☎743-9600)	
			7.5 ~ 7.26	토 10:00~12:30	20		
중원도서관	성남시민	MS오피스 속성반	7.1 ~ 7.24	화~금 10:00~11:30	30	2008.6.26~6.28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jw.snlib.net (☎752-3916)	
			7.1 ~ 7.24	화~금 13:00~14:30	30		
			7.1 ~ 7.24	화~금 15:00~16:30	30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장애인	7.5 ~ 7.26	3개월(월,수,금)	09:00~11:00 11:00~12:30	40	수시모집 (☎732-6884)
				3개월(월,수,금)	11:00~12:30	24	
				3개월(월,수,금)	09:30~11:00	24	
				3개월(화,목)	09:30~11:00	24	
				3개월(화,목)	11:00~12:30	24	
				4개월(월,수,금)	14:00~18:00	24	

※ 통 · 반장님! <비전성남> 배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사진_고홍석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당 잔치 '2008 남한산성 단오제' 열려

단오의 '단(端)'자는 첫 번째를 뜻하고, '오(午)'는 다섯을 뜻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를 뜻한다. 이 시기는 논을 갈고 물을 대어 모내기를 하고 난 후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때이다.

우리 선조들은 함께 어울려 모내기를 하고 난 뒤 단오잔치를 열어 한 해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며 무더위를 대비하는 지혜를 나누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송과 익모초 등 약이 되는 음식을 먹고, 그네와 씨름 등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며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2008 남한산성 단오제'는 단오의 일주일 뒤인 6월 15일 남한산성유원지 야외공연장에서 '풍물굿패 우리마당' 주최, 경기문화재단 후원으로 열렸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함께하는 단오제 체험행사'는 창포물 머리감기, 떡살찌기, 오색팍피(장명투) 만들기 등 무

운 그날에 안성맞춤인 물폭탄(풍선)던지기 등으로 꾸며져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길놀이 판굿을 시작으로 고사, 탈놀이·장작판소리 등의 축하공연, 그리고 풍물굿패 우리마당의 단오 풍물굿이 선보였다. 풍물놀이에서 주로 보는 설장구, 상모, 쇠놀이와 잡색극(사회풍자)은 물론 종이에 소원을 쓰는 소원 천쓰기 등 대동놀이가 펼쳐졌고, 관객들과 어울려 강강술래를 하며 단오제 행사는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풍물굿패 우리마당 관운부 대표는 "초창기 작은 동아리들이 합쳐 형태로 하던 것이 발전돼 남한산성 단오제가 올해로 12년째를 맞는다"며 "마당잔치 단오굿은 모두가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대동놀이로 모든 성남시민에게 열려 있는 이곳 남한산성에서 내년에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자 기자 ninga0805@hanmail.net



공연 Tip 남한산성유원지 야외공연장 7월 행사

- 7월 5,12,19일(토) 20:00~21:00 [찾아가는 토요 미니콘서트] 성남시
- 7월 12일(토) 15:00~19:30 [성남 오리들 두레 농악축제] 한국농악보존회
- ※ 우천시 일주일 연기
- 7월 19일(토) 10:00~15:00 [17회 성남 사랑 글짓기 대회] 성남문화원
- 7월 20일(일) 19:00~20:30 [풀벌레 소리음악회] 사랑방문화클럽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배우 남경읍 뮤지컬 인생 30주년 기념 6월 28~29일 'I am 남 Sam'



진정색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에 대한민국 뮤지컬계에 뜻 깊은 공연이 마련된다. 국내 뮤지컬 배우의 산실인 남아카데미의 원장, 계원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남경읍 선생은 올해로 데뷔 30년을 맞는다. 은사 남경읍을 위해 그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뭉친다.

2008년 6월 28, 29일 양일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남경읍 뮤지컬 장학재단 설립추진위원회와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하며, 그의 제자인 뮤지컬배우 박건형, 서범석, 소유진, 이을, 이하나, 조승우, 최재용 외에 배우와 스텝이 남경읍과 함께 특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배우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학창시절 남경읍 선생이 늘 하던 말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인간이 먼저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정성없이 무대 위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며 제자들은 조용히 돌아켜 본다.

연기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며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눈물과 무서운 매로 가르치던 스승이었다고 한다. "우리의 스승이 계시고, 남경읍 선생의 예술혼이 살아 있는 연기에 예술인으로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이번 공연에 온 힘과 정열을 쏟고 있다.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게 근본을 가르쳐 준 선생님과 제자들이 힘을 모아 멋진 공연 'I am 남 Sam'이 만들어진다. 이번 공연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공연으로 수익금은 평소 남경읍의 가장 큰 바람이었던 후진 양성을 위한 뮤지컬 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사용된다.

예매문의 02.501.7888 공연문의 FM Arts 02.3471.6475

장영희 기자 essay45@hanmail.net

6·7월 문화 행사 캘린더

6월										7월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div data-bbox="468 1993 1032 2199"> <p><아쿠아 마린 바다세상 젤리향초>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젤리향초와 각종 부자재(모래, 조개껍데기, 불가사리 등)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속 바다 이야기를 만들어보면서 창의력 개발과 집중력향상 등 성취감을 심어주고자 함. • 일시 : 6.28(토)~29(일) 14:00 / 16:00(총4회) • 대상 : 7세~초등학생 50명(회당 25명) • 참가비 : 4,000원(체험 미리 예약) • 책 테마파크 708-3588/ 9088 </div>										<div data-bbox="306 2210 991 2346"> <p>성남시립교향악단 54회 정기연주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8년 6.26(목) 오후 8시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프로그램 :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립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작품 35번 • 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 봉, 바이올린 김현미 • 성남시향 729-4809 </div>										<div data-bbox="408 2357 1134 2463"> <p>제2회 미르세본콘서트 "응문OB남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자 윤성보 반주 이진실 • 일시 : 2008.6.28(토) 오후 7시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미르메일과이어 010-3118-7818 </div>										<div data-bbox="306 2475 930 2610"> <p>박혜라 개인전 '비 오는 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비' 그리는 화가 박혜라 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주요일 중, 문득 말아지던 싱그러운 비내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 전시 : 6.20(금)~7.10(목) • 개관시간 : 11:00~20:00(전시 기간 중 무휴) • 분당 아트스페이스 율 709-6868 </div>										<div data-bbox="102 2622 807 2757"> <p>N Gallery 기획 초대전 <D'amour - 한·불 작가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일정 : 2008.6.5(목)~7.6(일) • 관람안내 : 화~일(10:00~17:30) 월요일 휴관 • 참여작가 : 마셀 킹, 모레노 벤카스, 마셀 앙리, 드라고 데디, 미셸 쥘렌느, 장 마리 자키, 알렉 본노푸아, 폴 알렉시, 닐리 벤카스, 이리스 바가즈/ 남궁원, 박용인, 천명자, 정강자 • N Gallery 070-7430-3323 www.ngalleryart.com </div>										<div data-bbox="1400 2022 1900 2199"> <p>독서문화 전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2월까지 매월 • 내용 : 책을 싫어하거나 편독하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방문하여 전시회를 접하게 함으로써 책에 대한 호기심 유발 • 장소 : 중앙도서관(http://ct.sniib.net) 로비 •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 729-4642 </div>										<div data-bbox="1441 2210 1900 2357"> <p>찾아가는 토요 미니 콘서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 9월까지 매주 토요일(오후 8시) • 장소 : 남한산성유원지, 화양대공원, 분당구청앞 문화의거리 • 문화예술과 예술팀 729-2982 </div>										<div data-bbox="1144 2504 1839 2640"> <p>N Gallery 기획 초대전 <circle & square 회화·조각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일정 : 2008.7.11(금)~9.7(일) • 관람안내 : 화~일(10:00~17:30) 월요일 휴관 • 참여작가 : 곽동효, 박남철, 이종승, 정일, 황용진(이상 회화), 김성복, 김주호, 박현열, 양태근, 이기일, 이재효(이상 조각) • N Gallery 070-7430-3323 www.ngalleryart.com </div>										<div data-bbox="991 2681 1461 2787"> <p>책 테마파크, 전시 공연 체험 <움직이는 그림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움직이는 방'이라는 동화속 상상력이 현실화 되는 그림이야기 • 전시기간 : 2008.6.18(수)~7.19(토) • 책 테마파크 708-3588/ 9088 • 장소 : 율동공원 번지점프장 앞 </div>									